

대중 속으로 걸어들어온 불교서적

역량 있는 출판사들마다 잠재독자층에 접근한 기획서 퍼내

황찬익

월간 《대중불교》 편집부 차장

불교 관련서들 가운데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책들은 바로 독경본·해설본의 경전류들이다. 여기에 이름 있는 스님들의 법어집을 보태면 이 두 분야의 책들이 전체 불교출판물의 4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 책들의 대부분은 불교출판에서만 볼 수 있는 '법보시'라는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서점에서 판매되는 부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사찰이나 그밖의 방법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오랜 동안 이런 불서출판 관행은 좀처럼 바뀔 가능성이 없어보였다. 불교를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전을 독송하는 일은 여전히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또 스님들의 법어집 출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래서 이 두 분야의 출판은 불서출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리잡아 왔다.

경전·법어집에서 대중서로

이런 전통적인 불교서적 출판의 유형은 80년대를 거치며 가장 성하다가 근래에는 점차 찾아들고 있는 추세다. 출판부수도 줄고,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 원본의 경전 번역 외에는 새로운 경전출판 시도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서전문 유통업체들에서 낸 통계는 이런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96년 한 해 동안 출판한 불서의 전체 종수는 230여 종. 이 가운데 경전·법어집을 제외한 여타 분야는 꾸준히 상승해서 불교학술(27%), 불교문학(17%), 신행(信行)(10%) 분야의 책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출판종수 통계는 이렇지만 가장 많이 팔린 책, 즉 판과 쇠를 거듭하며 부수를 늘리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베스트셀러들을 분석해보면 기존의 경전·법어집 중심의 출판 양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 확인해진다.

지난해만 해도 베스트셀러 1, 2위를 기록했던 일타 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과 우학 스님의 《저거들은 맨날 고기묵고》는 각기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지 제시함으로써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출판종수에서는 4위에 머물던 신행, 즉 종교생활 분야의 책들이 실

제 부수는 가장 많이 발행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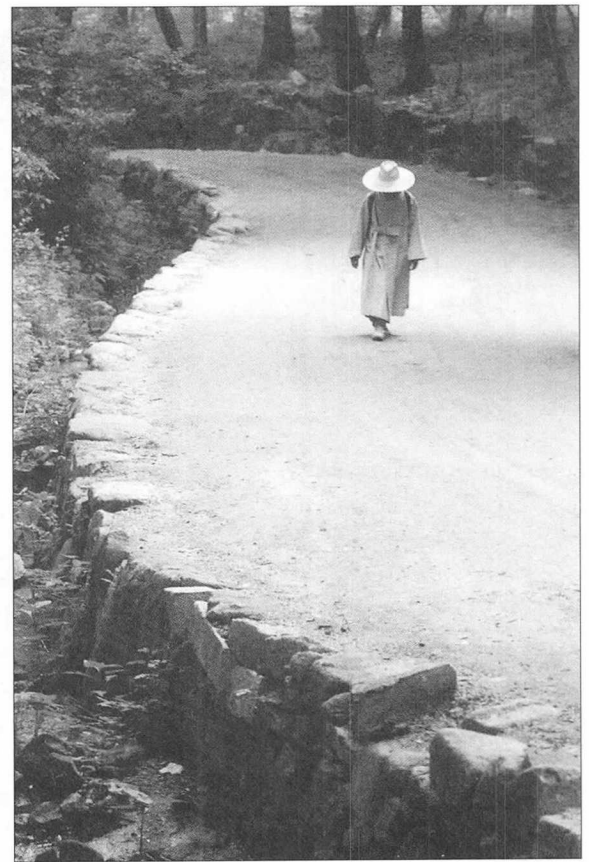
90년대 들어서며 불교출판에 이런 변화의 물꼬를 트게 한 중요한 요소는 불교신자들의 종교관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즉, 아직까지는 팔목할 정도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복 중심의 신앙생활이 도심 포교당이나 교양대학 등을 매개로 점차 교육·수행·봉사 등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 수정된 실행방향은 민감한 출판의 판도를 서서히 그러나 저변에서부터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변화를 검증케 하는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열거할 수 있다. 먼저, 입문서류 책의 출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몇 종은 출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것도 있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펴낸 《불교입문》은 대표적인 모델이 된다. 종단에서 펴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단기간에 많이 팔리는 것으로 주목받았던 이 책은 불교를 교리로만 설명하려던 이전까지의 입문서와는 달리 일반적인 개념과 용어, 문제의식 등으로 초심자들을 불교로 이끌려고 한 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받는다. 이보다 먼저 발간됐던 《백문백답(입문편)》이나 《불교학 강의실 J 301》 등도 꾸준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입문서이다.

두번째로는 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교양대학이나 사찰 신도교육에서 채택된 교재류의 개문서들이 주목된다. 시공사에서 펴낸 《유식입문》, 《불교철학사》나 장휘옥 교수의 《정토불교의 세계》 등이 최근에 출판된 개문서로서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다. 세번째는 수행관련 서적의 팔목할 만한 상승세를 꼽을 수 있다. 장순용씨의 《참선의 길》이나 《도솔천에서 만나다》, 《영원한 대자유인》 등이 선 관련 서적의 출판붐을 이루고 있으며, 남방불교의 수행방법인 위빠사나 관련서적도 꽤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일반서점에서도 베스트셀러 상위순위에 기록되고 있는 김정민씨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나 《근본불교의 가르침》, 김열권씨의 《위빠사나》 등이 대표적으로 위빠사나 수행법을 담고 있는 책들이다.

네번째, 불교서적 전문 출판사가 아닌 기

경전류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불교서적이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불교를 제대로 알 수 있으며 부처의 가르침을 생활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제시한 책들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존의 역량 있는 출판사들에 의해 기획된 불교서적들이 불교 내부의 열린 공간을 비집고 들어온 경우이다. 이들은 불교라는 잠재된 독자층에 발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디스커버리 총서 가운데 끼여 있는 불교서적들이나 한길사 그레이트 북스의 《우파니샤드》 《인도철학사》 등이 영세한 불서전문출판사에서는 출판하기 힘든 대형 기획물들로서 불교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면, 샘터의 《길없는 길》 등의 소설류는 불교 외부의 유명 필진을 불교 속으로 데려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예측할 수 없었던 두 가지 모험은 각기 예상치를 웃도는 성공을 거둬 거의 모든 책이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라 있다고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종교관이나 신앙생활의 형태를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주체인 조계종단에서 나온 출판물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불교입문》 외에도 《석가여래행적송》이나 《아함경》 등이 조계종출판사라는 종단 산하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들이다. 이 책들은 종단의 공식통로를 따라 전국 사찰에 보급되기도 하고 일반서점에서도 적잖은 부수가 판매되면서 불교서적 가운데 단일 품종 최대의 판매부수를 기록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새로운 독자층을 개발해야

그러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나 실천행위의 변화를 가지고 불교서적의 출판 유형이 변모해가는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거기에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있었던

우리 것을 동경하는 거대한 추세의 한 줄기가 불교로 스며들었던 점도 지적되어야 하고, 90년대 들어서 부쩍 불교학의 연구성과가 축적되며 응용할 만한 여지를 남긴 점 등도 언급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20~30대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늘어난 것도 큰 몫을 했다.

모처럼 신선한 변화를 맞은 불교출판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먼저 기존의 협소한 독자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된다. 이전까지의 틀에 박힌 출판형태를 뛰어넘은 것처럼, 틀에 박혔던 독자들을 대치할 새로운 그룹에게 참신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일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 이미 새로운 독자그룹은 형성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한가지는 필자문제다. 30여명의 단골필자에게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과감히 깨뜨리고 스스로 종합적인 기획력을 갖추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엄밀히 말해서 책은 상품이다. 상품으로서 스스로 구매력을 가지고 다른 상품과 경쟁하며 윤희게끔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을 관철하고 살아남은 책만이 상품 이상의 종교적인 사명도 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불교출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에 버금하는 사명감과 그 이상의 능력을 겸비할 때야만 수많은 독자를 종교적으로 만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 같다. ❖